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싫은 것보다 좋은 것이 훨씬 많아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세상 왜 살아, 하고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싫은 것보다는 좋은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현장심사 진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현장심사 수검을 받았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에서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 지원을 위해 병원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현장심사를 진행하면서 임근찬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장은 인증제의 필요성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의 보건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권범선 병원장은 “적극적인 인증 심사 수검을 통해 정보기술을 이용한 근거 기반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진료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등사 지정의료기관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6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와 지정 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등사 스님, 신도 및 종무원들의 진료 편의 제공과 종합검진 등의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채석래 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등사 스님, 신도 및 종무원들의 의료적 상담, 검사, 치료 등을 적극 지원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전등사 주지 여암스님과 채석래 의료원장, 최기석 행정처장 등이 함께 했다.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 1천만 원 기부

경북 청도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이 병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17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권범선 병원장, 최기석 행정처장, 김광기 기획처장, 지도법사 능지스님, 박완임 간호부장 등이 참석했다.
명성스님은 “동국대학교병원이 자비의료 실천의 중심도량으로 발전하길 발원하며 앞으로 교계종립병원으로써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기부소회를 밝혔다.
권범선 병원장은 소중한 정재를 희사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즉사이진(卽事而眞), 매사에 진실하라는 스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병원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명성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 불교의학연구소 기금, 동국대학교에 발전기금과 장학기금 등 현재까지 총 3억 8천여만 원을 기부했다.
한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중강당을 명성세미나실로 네이밍하여 명성스님의 기부 공덕을 기리고 있다.



화성 신흥사 진여행 불자 영유아기금 2억 원 기부

경기도 화성 신흥사(회주 성일스님)에서 진여행 불자님이 영유아를 위해 써달라며 기부금 2억 원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기부했다.
지난 23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제1회의실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상임이사 성월스님, 용주사 주지 성법스님, 신흥사 회주 성일스님, 신흥사 주지 성관스님, 채석래 의료원장, 권범선 병원장, 최기석 행정처장, 지도법사 능지스님 등이 참석했다.
진여행 기부자는 “교계종립병원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영유아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구입 및 치료기금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기부소회를 밝혔다.
권범선 병원장은 “진여행 기부자님과 신흥사 회주스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진여행 영유아기금으로 명명하여 영유아 환아들의 치료비와 영유아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구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병원을 바꾸는 기분 좋은 첫 응대 간호부 캠페인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부는 ‘병원을 바꾸는 기분 좋은 첫응대’ 부서별 라운딩 캠페인을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4주간 진행하고 있다.
보다 친절하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간호부 PEM위원회를 주축으로 각 부서의 수간호사와 교육책임 간호사가 함께 ‘웃으며 먼저 인사하기’, ‘밝은 목소리로 응대하기’를 실천 중에 있다.
박완임 간호부장은 “이번 캠페인은 미소와 반가운 인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기분 좋은 첫응대를 통해 병원의 이미지와 내원객의 만족도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전등사 사찰순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는 지난 6월 11일 전등사에서 ‘함께 가는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이해원 연우회 회장을 비롯해 지도법사 능지스님 등 연우 회원 14명이 함께 했으며, 이번 신행활동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쳐 있던 직원들은 마음을 힐링하고 신심을 다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강화도에 위치한 전등사는 대웅보전을 비롯한 6개의 보물과 국가사적을 보관 및 관리하고 있다.

